중국 연변 조선족 농업인 생활실태 조사

최윤지 · 김경미 · 이진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 Survey on the Farmer's Life in Yanbian, China

Choi Yoon Ji · Gim Gyung Mee · Lee Jin Young

Researcher,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DA

Abstract

The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on the farmer's life in Yanbian, China. The major findings are: 1) The people in farmhouse use wood as a fuel for cooking and the method of cooking is traditional style using their iron pots. The floor heating of the house and cooking food can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Most of the farmer use pump system. 2) Korean traditional foods should be inherited and they usually eat rice. Kimchi, Soy-sauce, and Hot-pepper paste are mostly made at home. 3) Housewives do actively participate in income management. Results indicated that overall Korean immigrants in China maintain their ethnic identity, ethnic language and culture.

Key Words: living conditions, farmer's life, rural area, Korean-Chinese,

Ⅰ. 서 론

현재 중국에는 연변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 3성에 약 200만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토착 민족이 아니라 19세기 중기 이후 조선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왔다. 이처럼 중국내 조선족은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연변 조선족의 경우 한국 이외의 단일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서는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임계순, 2003). 조선족은1952년에 자치주와 자치현을 설립하였다[1].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은 한족이 모든 민족의 중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기타 민족은 이러한 틀 속에서 각 민족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쌍방은 상호불간섭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서로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족들이 중국 이외의 정주하고 있는 한인들 보다 모국의 생활습관, 언어, 가족의식 등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족 자신들도 이러한 민족

1) 중국조선족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중앙과 유관 지방정부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도시에 있는 조선족들의 집단거주지에 자치기관을 설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 30일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은 58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치권이나 자치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모든 민족은 중국의 공민"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권적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범위내에서의 제한적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에 불과하다.

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역사의 흐름과 세대의 교체, 문화의 발전 등으로 다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한국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부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지리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북한과 더욱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북한문화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협력사업, 금강산 관광 등 사회적 분위기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있다. 농촌지도사업 특히 생활지도사업에서도 장차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농업인 생활실태에 관한 자료와 통계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연변자치주내에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북한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중국측 주민들이 경계에서 35Km까지 왕래가 허용되고 있으며 생활양식 또한 북한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자료로 어느 정도는 북한 사회의 농업인 생활실태를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장차 통일에 대비한 농촌생활지도사업 추진방안 모색에도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중국 정부는 계통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중국 거주민의 생활조사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 정부 승인아래 1993년부터 "북한농업조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농업사회발전연구원[2]"의 조사단과 합류하여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면접조사, 기록, 사진촬영을 하였다. 조사내용은 우리 농촌생활개선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주생활, 식생활, 생활계획 및 가정관리, 농작업, 생활시간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학습조직과 능력교육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0. 7.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길림성의 연길시 의란진, 집안시 마섬향 건강촌과 요녕성의 심양시 서교촌, 요양시 조양촌 등 4개 자연부락을 대상 총 12농가를 조사하였다[3].

Ⅲ.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2명, 40대가 1명, 50대가 7명, 6o대가 1명 70대가 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수준이었으며, 벼농사가 주작목이었고 농가의 부식 해결을 위하여 텃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자녀수는 1명에서 5명까지 있었으며, 젊은 층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가족계획에 잘 따르고 있었다[4].

---

2) 농업사회발전연구원은 농촌진흥청 용역연구사업으로 농업여건, 쌀 농사, 밭농사, 원예, 축산, 잠업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가 분담하여 북한의 농업실태를 조사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전문가의 도움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3) 외국인이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농업사회발전연구원의 연구팀과 동행하며 조사하느라 이동시간이 많아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4)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중국인에게는 1명, 조선족 등 소수민족에게는 2명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표 1〉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농가명	연 령	학 력	총가족수	주작목	영농규모	비 고
길림성	연길시	최○○	31	고 졸	3	벼, 사과	-	
		박○○	56	초등졸	5	벼	-	
		김○○	60	초 등 중 퇴	7	벼	-	
요녕성	심양시	장○○	52	무 학	5	벼	논 2,500평 닭 30, 돼지1, 소 2	
		장△△	44	무 학	6	벼	논 2,000평 밭 2,000평 소 2, 닭20	21세에 결혼
		정○○	53	중 졸	7	-	텃밭 수준 운영	
		백○○	72	무 학	6		-	며느리 2명과 딸은 한국에서 취업중
		정○○	59	-	7	-	텃밭 수준 운영	자녀들이 보조
		김○○	51	무 학	4	벼	-	
		명○○	38	초 등 중 퇴	3	벼	7모반	
	요녕시	박○○	50	국 졸	4	벼	8모[5]	
		이○○	54	-	5	벼		

2. 주생활

주거형태는 한결같이 一(일자)집으로서(속칭 말집이라고도 함) 병렬배치 어 있고 출입문, 유리창의 틀 색깔이 하나같이 푸른색이었으며 최근 들어 신축건물에는 서양식 구조를 도입한 경우도 있었다. 울타리는 나무 판자쪽이 대부분이고 주택은 단열재가 없이, 나무, 흙이 주재료이며 벽 두께가 얇고, 지붕은 초가가 20%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기와와는 다른 시멘트 기와지붕이었다. 조선족의 앞 벽에는 흰색의 칠을 하여 한족(漢族)의 집과는 구분을 한다고 하였다. 겉에서 보기에는 60년대 우리 농촌과 비슷하나, 집안구조는 부엌과 방의 구분이 없이 한 공간에 배치되어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와는 완전히 달랐다.

집안은 크게 아궁이부분, 부엌부분, 간이 칸막이를 막았다 텄다 할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부엌부분에는 가마솥이 2개, 볶음용 철판 1개[6], 수도꼭지가 달린 물 항아리가 있었고, 방안에 찬장이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마루판을 떼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부뚜막이나 방과 같은 높이로 판을 덮어 마루로 사용하고 있었다.

5) 조선족 농업인은 경작규모 단위를 '모'로 답변하였는데, 1모는 3600㎡(60m×60m)를 의미한다.

6) 박경희(1994)는 해방전까지는 주로 2개의 가마솥을 설치하였으나 해방이후 조선족의 가마공장이 설립되어 대량생산 및 공급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3개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젠베가마라는 번철을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번철은 반찬 조리시에 사용하며 겨울철 실내의 습기를 없애는 역할도 한다.

온 집안 식구가 한방에서 기거하고 있어 가족간의 개인공간은 없었으며, 연료는 갈탄을 사용하거장작을 사용하고 있었다. 겨울 준비로 집집마다 장작더미를 매우 크게 쌓아 놓았다. 그리고 취사연로는 LNG가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었다[7]. 고도임 등(1998)의 연구에서도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취사·난방연료는 나무라고 보고하였다.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안채와 별도로 집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통 굴뚝 반대편에 있다. 한사람이 겨우 들어가 일을 볼 수 있게 판자로 지어졌고, 액비통은 항아리를 쓰고 있었으며 크기는 사방 1m 안팎에 높이도 성인 남자 키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편이며, 바닥을 파서 드럼통을 묻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땅을 파서 만든 후 땅바닥에서 일정높이를 띄우고 그 위에 널빤지 2쪽을 놓아 설치하였다. 분뇨는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화장실에는 조명설비가 없어서 밤에는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한다. 목욕실은 1가구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또한 내구재중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TV이었고, 세탁기·선풍기가 있는 농가는 4농가, 라디오·냉장고가 있는 농가는 3농가 정도 되었다. 조사대상 농가중 한국에 취업 등을 한 가족이 있는 농가는 다른 농가에 비하여 내구재를 좀 더 많이 갖추고 있었다.

조선족 전통농가의 주거수준은 아직 낙후된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문화가 보급되면서 점차 개량적 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주거시설의 수준 또한 향상을 꾀하고 있었다.

〈표 2〉 주거환경

조사역		농가명	주거환경						
			부엌구조	취사연료	상수원	방갯수	화장실	목욕실	내구재
길림성	연길시	최○○	재래식	나무, 가스(LNG)	상수도	3	재래식(외부)	온수기(옥내)	TV, 냉장고, 풍기, 세탁기, 전자렌지, 다리미
		박○○	재래식	나무, 가스(LNG)	상수도	3	재래식(외부)	-	TV, 라디오, 풍기
		김○○	재래식	나무	상수도	2	재래식(외부)	-	TV
	마섬향	장○○	재래식	나무 가스(LNG)	펌 프	2	재래식(외부)	-	TV, 라디오, 재봉틀
		장△△	재래식	나무 가스(LNG)	우 물	2	재래식(외부)		TV, 전기밥솥
		정○○	재래식	나무, 갈탄	펌 프	4	재래식(외부)		TV, 라디오
요녕성	심양시	백○○	개량	갈탄, 가스	수 도	3	재래식(외부)		TV, 비디오, 장고, 전화, 가스렌지, 선풍기, 쇼파, 대
		정○○	재래식	나무, 볏짚	펌 프	2	재래식(외부)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김○○	재래식	나무, 볏짚	펌 프	2	재래식(외부)		TV, 세탁기
		명○○	재래식	볏짚, 갈탄	수 도	3	재래식(외부)		전기밥솥
	요녕시	박○○	재래식	나무, 볏짚	수 도	2	재래식(외부)		TV, 냉장고, 세탁기, 전화
		이○○	재래식	볏짚, 가스	펌 프	2	재래식(외부)		TV, 비디오, 냉장고, 선풍기

3. 식생활

주식은 주로 흰밥 또는 옥수수를 조금 섞어 먹는 정도이고 가지나물 등 채소를 먹고 있었다. 류은순·류경(1996)의 조사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주식으로 밥외에 밀가루 만두, 밀가루 국수와 같은 한족 음식을 적당히 즐기고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하루 세끼를 밥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균형식의 개념은 인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지나다닐 통로만 빼고는 방문 앞까지 가지, 호박, 껍질콩, 고추 등 가정원예포(일명 남새밭)를 조성하여 채소는 자가생산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자체 생산하며, 배추김치, 깍두기, 영채김치(열무김치), 채지(무우채), 총각김치, 쑥갓김치, 갓김치, 물김치, 오이김치, 동치미, 짠지 등을 즐겨 담근 다고 하였다.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3농가 정도이었다. 냉장고가 없는 대신 식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땅에 구덩이를 파서 저장하고 있었다. 땅을 약 2m 정도 깊이 수직으로 판 후 그곳에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항아리를 갖다 놓고 항아리에 김치 등 식품을 저장,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냉장고 보급률로 김치 대신 야채볶음, 생채, 겉절이 등을 자주 이용하는 농가도 있다고 한다(김응렬, 1992).

〈표 3〉 식생활

조사지역		농가명	식생활						
			식사 횟수	단백질 음식 섭취	채소류 섭 취	과일류 섭 취	식사 속도	영양 지식	비 고
길림성	연길시	최○○	3번	2일에 1번(생선류-고등어, 조기, 갈치 이면수, 명태, 오징어 등)	매끼 먹음 (배추, 상추, 가지, 오이, 강낭콩, 고사리, 곰취)	꽈리, 포도 외지(살구류) 앵두	천천히 (1시간)	모름	사과, 배 주산지
		박○○	3번	자가 두부, 돼지고기 2주일에 1번, 송어, 낙지	상추, 오이 감자, 호박	토마토, 외지 (1주일에 1회)	-	오답	
		김○○	3번	닭, 계란	고추, 가지, 감자, 오이, 마늘/파절임	앵두, 외지, 살구	-	모름	
	마섬향	장○○	3번	돼지고기	배추, 갓, 가지, 고추	사과, 배, 앵두	-	모름	
		장△△	3번	소고기, 양고기	파, 땅콩, 감자, 상추, 가지	자두, 살구 복숭아, 배	천천히 (1시간)	모름	쌀, 콩, 옥수수
		정○○	3번	닭고기, 생선, 달걀	상추, 감자	사과, 복숭아, 수박	천천히	정답	

조사지역		농가명	식생활						
			식사 횟수	단백질 음식 섭취	채소류 섭 취	과일류 섭 취	식사 속도	영양 지식	비 고
요녕성	심양시	백○○	3번	단고기	상추, 감자, 콩, 가지	외지	-	모름	
		정○○	3번	닭, 단고기	상추, 오이, 감자, 콩, 옥수수	앵두, 대추	빠 름	모름	
		김○○	3번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갈치, 고등어)	가지, 고추, 오이	앵두, 대추, 외지		모름	
		명○○	3번	돼지고기, 단고기	고추, 단콩, 오이, 가지, 깻잎	앵두, 외지	천천히	모름	
	요녕시	박○○	3번	소고기, 돼지고기	오이, 고추, 가지	사과, 배	-	모름	
		이○○	3번	돼지고기	단콩, 가지	참외, 포도		모름	

4. 생활계획 및 노동

돈 관리를 아내가 하는 경우는 9농가이었고 남편이 하는 경우는 2농가 그리고 사위가 하고 있는 농가가 1농가가 있었다.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은 농가가 6농가 이었고, 계획을 한 후 계획대로 실천한 농가가 6농가 이었다.

노동시간은은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분포를 보였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에서 5시간의 분포를 보였으나 대부분이 4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시간의 범위는 1시간에서 6시간으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조선족 농업인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김병호(1997)는 중국 조선족의 사회경제문제 중에서 조선족 노동력의 과잉과 향진기업 발전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즉 중국농촌에서 개혁 개방이후 '생산도거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농업기계 사용이 많아져 조선족 농촌지역에는 50%이상, 어떤 지역에서는 65%-70%의 노동력이 과잉상태에 있기에 과잉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향진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나 지도자와 자금 등이 난제로 작용하기에 발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 방문한 지역과 농가들 역시 쌀농사 중심으로 농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노동시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

7) 프로판가스는 현에 가서 1년에 2번 정도 구입한다고 하였으며, 1통에 연길시의 경우 30元, 심양은 50元 이었다.

〈표 4〉 생활계획 및 관리

조사지역		농가명	생활계획 및 관리						
			자녀출산 계획	돈 관리[1]	생활시간				비고
					노동시간[2]	가사노동시간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길림성	연길시	최○○	계획대로 실천	아내가 주로 관리	12시간	3시간	8시간	1시간	
		박○○	계획대로 실천	아내가 주로 관리	10시간	4시간	7시간	3시간	
		김○○	계획하지 않음	아내가 주로 관리	9시간	4시간	8시간	3시간	
	마섬향	장○○	계획대로 실천	사위가 관리	8시간	2시간	9시간	5시간	
		장△△	계획하지 않음	아내가 주로 관리	8시간	4시간	9시간	3시간	
		정○○	계획대로 실천	남편이 주로 관리	11시간	4시간	8시간	1시간	
요녕성	심양시	백○○	계획하지 않음	아내가 주로 관리	6시간	4시간	8시간	6시간	
		정○○	계획하지 않음	남편이 관리	6시간	5시간	9시간	4시간	
		김○○	계획대로 실천	아내가 주로 관리	10시간	3시간	8시간	2시간	
		명○○	계획대로 실천	아내가 주로 관리	9시간	4시간	9시간	2시간	
	요녕시	박○○	계획하지 않음	아내가 주로 관리	9시간	4시간	8시간	3시간	
		이○○	계획하지 않음	아내가 주로 관리	10시간	4시간	8시간	2시간	

1) 일상적인 관리는 아내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2) 농번기 농업노동시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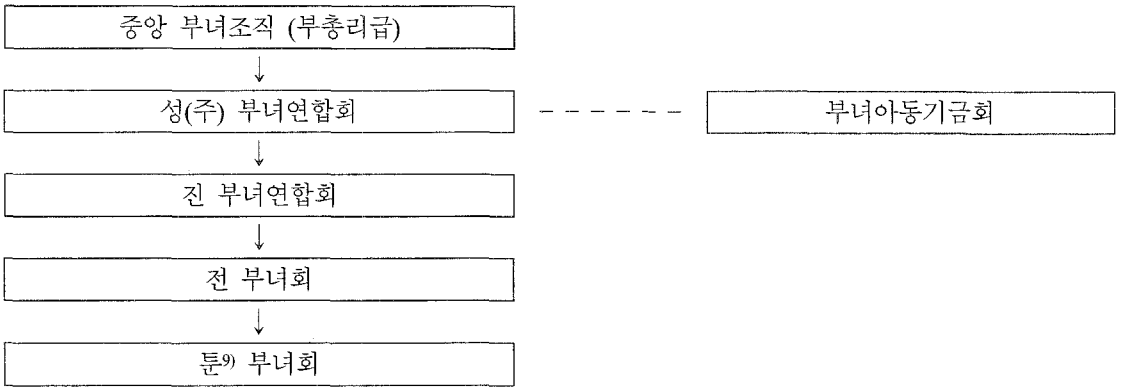
여성들은 주로 농작업으로 김매기, 파종, 모내기, 타작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6시간 기준으로 년간 3개월 정도를 농업에 종사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산나물을 채취한다거나 가까운 식당에 나가 일을 하는 등 농외소득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농사기술은 진에 있는 "농업기술 보급소"에서 신기술, 잎담배기술, 우량품종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하기도 하고[8] '사업단'이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5. 여성 조직

조선족 사회에서 부녀회, 청년회 및 소년회 등의 조직은 정치와 행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부녀회를 통하여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개선지도 관련 사업기구와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길시 의란진 부녀연합회 주석(최 ○○)은 중국의 여성행정조직은 진(읍)단위에 부녀연합회가 있고, 전(면), 툰(마을)단위에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툰(마을)단위에서는 자체적인 모임과 활동은 없고 '산아제한'에 관한 학습, 여성의 권익보장 및 미성년자들의 위법행위방지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격월로 부녀회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고 하였다. 진(면)부녀회 또한 상부의 전달사항을 부녀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산아제한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부녀연합회의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 대신 공동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회비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그림 1〉 부녀회 조직

Ⅳ. 요약 및 결론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약 200만명으로 소수민족 중 1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길림성, 요녕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농업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중국 조선족들은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는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인 유산은 한민족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오면서도 북한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북한 문화와 밀착되어 있을 조선족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1. 조선족 농가의 주생활은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여 나무를 주로 활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등도 재래식으로 실외에 설치하고 있었으며 개인위생을 위한 목욕시설이 없었다. 이처럼 연변 조선족 전통농가의 주거수준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문화가 보급되면서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시설이 편리화 되고 있었다.
2. 식생활에서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간장 등을 가정에서 생산하여 먹고 있었으며 단백질 섭취도 1주일에 1번 이상씩 하려고 하였으며 채소류 섭취를 위한 텃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양지식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쌀 중심의 농업생산구조하에서 농기계 없이 인력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노동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분포가 넓게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시간은 3시간 정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4. 가정내에서 돈관리는 아내가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계획은 계획을 세워 그대로 실천한 농가가 6농가로 나타났다.
5. 마을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는 부녀조직의 주요 기능은 산아제한에 대한 여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농사기술은 '진'에 있는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농업인의 생활을 이해하고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면 통일 이후

8) 길림성 연길시의 경우 1회 교육시 100여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였다.
9) 툰(屯): 자연부락의 개념으로 한 개의 작은 마을인데 이것이 모여서 촌(村)을 이루게 된다.

북한의 변화모습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참고문헌

강순화. (1995). **민족문화의식에서 본 중국 조선족의 몇 가지 우월성: 중국 조선족 우월성 연구**. 집문당.

고도임, 박남희, 최형선, 윤복자, 박경난. (1998). 중국 연변 조선족 저통농가의 시설설비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6(2), 123-131.

고지영. (2003).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호. (1997). 중국 조선족의 사회경제문제－조선족의 농촌경제와 농민문제를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5, 221-229.

김종국. (1995). **중외 조선민족 이동론: 중국 조선족 우월성 연구**. 집문당.

김응렬. (1992). **동북3성 조선족의 가족구조: 중국 조선족 사회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

류은순, 류경. (1996).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의 식생활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3), 327-337

임계순. (2003). **우리에게 다간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서울:현암사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 (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박경휘. (1994).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 풍습**. 집문당.

최길웅. (1992). 연변조선족자치주 개방개혁전략 구상. **지역사회개발연구**, 17(2), 206-208

한상복, 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2006년 4월 17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